

이한열 열사 어머니, 아들 모교에 장학금 1억

배은심 여사·기념사업회 진흥고에 이 열사 기리는 후배들에 감사 전해 "어려운 학생들 위해 써 달라" 당부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와 이한열기념사업회가 이 열사의 모교인 광주진흥고에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 30일 진흥고에 따르면 최근 배 여사와 기념사업회가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 1억 원을 전달해 왔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수 년 전 '배 여사를 위해 써 달라'며 개인 후원자가 사업회에 1억 원을 지정 기탁했다. 배 여사와 상의해 이 금액을 이 열사의 모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진흥고는 역사동아리 '유월'을 중심으로 매년 6월 학생과 관련한 교내 전시회를 통해 이 열사를 기렸다.

올해도 신창마을 공동체와 협업을으로 '1987, 기억해야 할 이름 이한열'을 주제로 한 초청 강연·사진 전시·판화·책가·기억의 의자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배 여사는 "이 열사 추모식에 매년 후배 학생들이 참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가운데) 여사와 이한열기념사업회가 이 열사의 모교인 광주진흥고에 최근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한 뒤 교정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석하는 등 이 열사를 잊지 않고 기리는 활동에 감사하게 생각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쓰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호 진흥고 교장은 "후배들이 이 열사의 민주주

의를 향한 열정과 의지를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대학원 첨단소재공학과 학생들 잇따라 수상

이주희씨 한국부식방식학회 안경빈씨 금속재료학회 우수상



이주희 안경빈

조선대 대학원 첨단소재공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이 학술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첨단소재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안경빈씨는 최근 개최된 '한국부식방식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적층가공 Ti-6Al-4V 합금의 부식에 미치는 인공 타액 내 불소 이온의 영향'에 대한 연구 발표로 포스터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앞서 안씨는 '2020년도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주희씨도 '대한금속재료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생구두발표 우수상을 받았다. 이씨는 '레

이저피닝 처리된 티타늄 및 Ti-6Al-4V 합금의 부식 거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지난 2019년 국제부식학회 ICEC 최우수 포스터상, 한국자동차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상에 이어 학생구두발표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2년 연속 연구역량을 수상 성과로 인정받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향교, 공자 탄생 2571주년 기로연 행사



광주향교는 지난달 2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공자 탄생 2571주년을 맞아 기로연(耆老宴) 행사를 개최했다. 20여명이 원로 유림과 유림대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효자, 효부, 유공유림 표창도 진행됐다. 기로연은 70세 이상 원로들을 위한 잔치다. (광주향교 제공)

행사를 개최했다. 20여명이 원로 유림과 유림대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효자, 효부, 유공유림 표창도 진행됐다. 기로연은 70세 이상 원로들을 위한 잔치다. (광주향교 제공)

인사

◆전남대병원

- ▲진료처장 직무대행 박창환 교수 ▲기획조정실장 윤경철 교수 ▲교육수련실장 주재균 교수 ▲의생명연구원장 김재민 교수 ▲진료지원실장 류현호 교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 한재영 교수 ▲교육수련실 교육수련담당 김준태 교수 ▲법무지원실장 박중태(연임) 교수 ▲홍보실장 기승정(유임) 교수 ▲의료질관리실장 박용욱(유임) 교수 ▲진료협력실장 서영연(유임) 교수

호남대 교수들,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골목상권 살리기' 나섰다

외식조리학과 김영균 교수 등

메뉴·아이템 선정 등 재능 기부

호남대학교 교수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광주 광산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경영, 디자인 등의 컨설팅 활동을 펼쳐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산업디자인학과 오태원 교수 등이 힘을 보태고 있다.

외식조리학과 교수들은 1인 자영업자와 가족경영 위주의 영세한 골목상권들이 코로나19로 새롭게 자리

자인학과 교수는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품디자인과 포장디자인의 자문컨설팅을 실시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TV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카이로스(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아생여정 플러스(재)	00 땅만 빌리지(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재) 50 전교톱10(재)	00 12 MBC 뉴스 20 따라라 따라라 똑딱맨(재) 50 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뽀뽀 보험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UHD 스테라(재) 55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45 내고향 전파 스페셜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2020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잠깐! 쉬운말 어때요? 25 이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뽀뽀 친구친구(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남도에 가요 다시보기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45 닥터 365 50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땅만 빌리지	20 카이로스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육탄방의 문제아들	40 PD수첩	00 펜트하우스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5 미래원정대의 위대한 여정 스페셜	15 불타는 청춘
[12]	10 KBS결핵 다큐멘터리 <모던 코리아 시대유감, 삼봉>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통합뉴스룸 ET(재)	4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퓌!톡! 보니하니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7:15 출동! 슈퍼왕스	12:25 베스트 히어로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식 e	19:45 극한직업 스페셜
07:45 꼬마히어로 슈퍼팩	13:00 EBS 다큐프라임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3:55 미래교육 플러스	<문경수의 숨겨진 제주 - 새들의 파라다이스>
08:30 티시테시	14: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45 몬카토	<집이 있는 풍경-차량담은 옛집, 중국>
09:00 뽀뽀뽀 뽀로로	16:15 올리엔 문	21:30 한국기행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30 당동명 유치원(재)	<산골 밥집 2부 비수구미 할매 밥상>
09:30 명탐정 피트	16:50 해오와 해오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2:45 건축탐구 - 집
10:30 한국기행	17:20 마사와 곰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출동! 슈퍼왕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일(음 10월 17일 戊寅)

<p>36년생 전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나 계속 밀려 붙어라. 48년생 여기서 틀어지면 막판에 이를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임하라. 60년생 그란대로 양호할 것이다. 72년생 약간만 신경 쓰면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84년생 직접 나서서 적극성이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 96년생 일단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81</p>	<p>42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전환하라. 54년생 결함이 보이지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66년생 허황된 것일랑 접어 버리고 실질적인 것에 주력하는 것이 무난하다. 78년생 생반 간의 접어한 대립으로 불꽃 튀겼다. 90년생 뜻밖의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매달릴 수다. 02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에 서둘러서 애를 먹었다. 행운의 숫자 : 03, 93</p>
<p>37년생 성취의 문이 열릴 것이다. 49년생 참신해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법이다. 61년생 시작만 요란할 뿐이지 별것이 없다. 73년생 정성을 들이면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85년생 주판에 치우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97년생 생략할 한 어림이 필요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22, 97</p>	<p>31년생 소모적이라면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년생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라. 55년생 암운이 떠도니 신중히 처신해야만 할 것이다. 67년생 보이지 않는 곳에 걸릴 수도 있다. 79년생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낼 수다. 91년생 경미하다면 대범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20, 73</p>
<p>38년생 손대지 말고 그대로 유지함이 최상이다. 50년생 부른에 한정 되므로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62년생 듣고 접하다 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74년생 조건을 완화한다면 효과가 더 크다. 86년생 거슬러다려도 좋고 귀 기울이는 것이 좋다. 98년생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60, 64</p>	<p>32년생 윤곽이 잡히고 체계가 서게 되리라. 44년생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56년생 발 빠르게 대응 조치하면 문제점은 해결 될 것이다. 68년생 내면의 실정에 충실함이 합당하다. 80년생 알뜰한 발상이 윤곽한 생활로 이글거림을 명심하라. 92년생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고민이 해소된다. 행운의 숫자 : 37, 96</p>
<p>39년생 크게 상관될 바가 아니니 기존의 도량대로 추진하라. 51년생 노출 시켜서 좋을 일은 전혀 없다. 63년생 시간의 안배를 잘 해야 실행에 차질이 없다. 75년생 필연적임을 알라. 87년생 좁은 폭으로 길게 이어지리라. 99년생 지나친 집착은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1, 52</p>	<p>33년생 궁한 처지에 있던 이가 특효가 있는 약을 얻는 이치이다. 45년생 누구고든 원익적으로 대해야 하고 무엇이든지 정확해야만 한다. 57년생 함께 가야 갈 수 있는 마당을 만들자. 69년생 무난하리라. 81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93년생 무시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24, 51</p>
<p>40년생 영감이 따르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하루이다. 52년생 주체에 따라서 전망지가 될 수도 있느니라. 64년생 일탈하고 투명한 것이 바람직하다. 76년생 주제성과 확고부동한 자기 확신이 수반 되어야 한다. 88년생 믿음이 간다면 선택해도 무방하다. 00년생 꼭 알리려야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25, 55</p>	<p>34년생 현재에 국한 시키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갖자. 46년생 주변을 의식하다보면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법이다. 58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말라. 70년생 그대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용이하다. 82년생 큰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4년생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밝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23, 82</p>
<p>41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해결 될 수 있다. 53년생 주변 상황까지 살피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65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77년생 절실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89년생 모두가 따르므로이므로 개별적인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01년생 시일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방안을 모색하라. 행운의 숫자 : 48, 86</p>	<p>35년생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년생 윤색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59년생 분수를 지킨다면 화도 비켜가는 법이다. 71년생 꼼꼼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83년생 맡은 바가 무겁게 하는 것이 낫다. 95년생 소중히 여겨 왔던 것으로부터 얻는 바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04, 70</p>